

〈抄啓文臣題名錄〉 解題

鄭 玉 子*

抄啓文臣이란 奎章閣에 소속되어 재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던 年少文臣을 말한다. 奎章閣은 世祖때 梁誠之에 의해 그 설치가 제기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肅宗 때에 이르러 宗正寺에 小閣을 別建하여 「奎章閣」이라는 肅宗의 親筆 扁額을 써서 걸고 列聖祖의 御製·御書를 奉安하는 장소로 삼은 것이 시초이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존재였던 것을 1777년 正祖가 즉위하자 「繼志述事」의 名分아래 자신의 세력기반내지 문화정책의 추진기관으로 재구성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奎章閣이다. 따라서 奎章閣은 그 기능이나 성격이 정치정세에 따라 혹은 상황변동에 의해 조금씩 변질되며, 그 조직이나 제도도 몇번에 걸쳐 정비된다. 孤立無援의 상태에서 즉위한 正祖는 즉위초인 1776년 3월 奎章閣을 設施하고 이를 통해 戚里를 소탕하고 宦寺를 배제하는 등 政治的 機能을 수행하여 어느 정도 政權이 안정기반을 이룬 1781년(正祖 5)에 이르러 奎章閣을 文化機關으로 탈바꿈시키면서 「右文之治 作人之化」라는 理念을 내세우고 「作人之化」라는 측면에서 人材 養成策을 강구하니 바로 抄啓文臣制度가 그것이다.

이는 參上·參下의 堂下文臣 중에서 37세이하의 年少한 文臣을 議政府에서 뽑아 그 교육을 奎章閣의 內閣에 위촉시키는 제도로 40세가 되면 許免토록 규정하였다. 그 제도적 準據는 《經國大典》(續大典) 禮典 獎勵條의 月課文臣制와 專經文臣制에 두었고 國初의 賜暇讀書制와 成宗이래의 讀書堂(湖堂)을 계승하는 제도로 英祖 때까지 이름만 남아 있던 讀書堂의 意義를 계승하되 참신한 氣風을 振作시키려던 正祖의 포부가 빛어낸 人材 養成策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抄啓文臣題名錄》(奎 No. 9728)은 1冊 28장의 筆寫本으로 국내 유일본이다. 크기는 50.9×36.4cm이며, 고급 비단으로 裝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王의 御覽用이 아니었다 추측된다. 이 책이 이루어진 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李時秀(1745~1821)의 序文이 1786년(正祖 10년, 丙午)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781년 제 1회 抄啓文臣을 선발하여 이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해가 1786년쯤이므로 이때부터 名單을 적어가다가 1848년(憲宗 14년) 마지막 抄啓文臣까지 적고 나서 다시 御覽用으로 새로 筆寫한 것이 이 책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¹⁾ 따라서 이 책은 1848년경에 만든 것으로 보아 별 무리가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助教授

(1) 필적이 始終如一하므로 더욱 그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없을 것이다.

抄啓文臣에 관한 기록은 세 가지가 大綱을 이루고 있는데 李時秀가 序文에서

其義則著於內閣志 其法則詳於講製節目 其人則有題名記

라 하였듯이 그 뜻(義)은 內閣志 즉 《奎章閣志》에, 법(法)은 講製節目 즉 《文臣講製節目》에, 사람(人)은 題名記 즉 《抄啓文臣題名錄》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抄啓文臣題名錄》은 抄啓文臣에 대한 人的事項을 제공해 주는 기초자료로서 1781년(正祖 5, 辛丑)에 뽑은 제 1 회부터 1848년(憲宗 14, 戊申) 마지막회까지 12選 194명의 총명단이다. 이름아래 字와 生年을 밝히고 本貫을 적어 놓아 그 人物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한 회의 명단 끝에 뽑은 해와 主選한 相臣의 이름을 밝혀 놓았다.⁽²⁾

序文을 쓴 李時秀(1745~1821)는 延安 李氏, 英·正祖代의 名臣 李福源(1719~1792)의 아들로 제 1 회 抄啓文臣 출신이며 방금 그 교육을 마치고 原州牧使에 재직중이던 42세의 신진이었다. 이후 그는 계속 요직을 거치면서 승진하여 領議政에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위의 題名錄에 오른 抄啓文臣 출신들은 뒷날 모두 그 몫을 톡톡히 하여 滿朝(은조정)가 이들 抄啓文臣들이며 公卿大夫의 太半이 이들 출신이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³⁾ 人材養成이란 면에서의 최초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보여진다.

이 책의 首尾만을 보면 1781년에 시작하여 1848년으로 끝나 70여년간의 기록으로 보이지만 正祖 때 1781년부터 1800년까지 10選 138명을 뽑은 20년간과 憲宗 때 1846년과 1848년 두번에 걸쳐 2選 56명을 뽑은 사이, 즉 1801년부터 1845년까지 45년간(純祖朝와 憲宗 1년부터 11년까지)이 空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이 抄啓文臣制度의 운명을 암시해 주며 憲宗이 부활시킨 의미도 당시 政治狀況과 결부시켜 해명하여 봄직한 문제이다. 더우기 憲宗 末년에 부활되었던 이 제도가 哲宗이후에는 종지부를 찍고 마니 이는 戚族勢道政治 아래서 奎章閣 機能의 退化와 軌跡을 같이 하면서 점차 存在意義를 상실하여 퇴색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抄啓文臣題名錄》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젊은 에리트의 名單이라 간주하여 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니 이의 分析을 통하여 당시의 政治版圖의 대강도 抽出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는 正祖의 親政體制 정비에 필요한 人材養成이 목적이었으나 勢道政治에의 移行에 따라 결국 閥閥家 靑壯年 子弟의 명예직으로 전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 이러한 견지에서 憲宗 때의 名單을 추적하면 당시 權力의 核心構造를 밝힐 수 있으리라 상정된다.

(2) 抄啓文臣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拙稿, <奎章閣 抄啓文臣 研究>《奎章閣》4, 1981 參照.

(3) 《弘齋全書》卷 169, 日得錄 政事條「抄啓文臣 出於作成之苦心 行之二十年 未必其真有實效 而今則滿朝多是教導中人 而前後編書之役 分授考校 多賴其力 人才儘不可不儲養」.